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미·중 경제협력과 통상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

KIEP 북경사무소(ojh@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1. 미·중 경제협력 현황 분석
2. 주요 쟁점에 대한 중국의 입장
3. 100일 계획과 제1차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
4. 향후 전망

주요 내용

- 미국과 중국은 최대 선진국과 최대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무역관계로 경제협력의 주요 관심사안에서 차이를 보임.
 - 양국의 경제협력은 WTO 규정을 기반으로 하며, G20, APEC 등의 다양한 대화 기제를 통해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미국과 중국은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각각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상호투자, 금융 등 분야에서 직접적인 이익과 경제성장 촉진 및 성장방식 전환, 소비자 복지수준 제고, 일자리 창출, 국내 소비시장 발전 등의 간접적 이익을 얻고 있음.
- 양국 경제협력에 있어 미국은 △ 대중 무역적자 △ 위안화 환율 △ 공급과잉 △ 서비스시장 개방 △ 지식재산권 보호를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중국은 △ 시장경제지위 부여 △ 대중 수출 제한 △ 대미 투자 중국기업 공정대우 △무역구제조치 등을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음.
 - 미국이 제기하는 무역적자, 위안화 환율, 공급과잉 등에 대해 중국은 적자규모가 과대평가 되어있고, 위안화 환율의 시장화 매커니즘이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며, 글로벌 경제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이 철강 공급과잉의 원인이라고 반박함.
 - 중국은 미국과 EU가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 15조항 의무 이행 촉구, 하이테크 제품 수출 제한 해제, 중국기업 투자 심사 항목 기준 완화 필요성을 제기함.
- 미국과 중국은 4월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하고, 7월에 '제1회 포괄적 경제대화(U.S.-China Comprehensive Economic Dialogue)'를 개최함.
 - '100일 계획' 중 농업분야 상호 개방, 미국산 LNG 수출입 재개, 신용평가 업무 개방 등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음.
 - '포괄적 경제대화'에서는 미·중 경제협력 1년 계획(one-year plan)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거시경제 및 금융, 무역, 투자, 글로벌 거버넌스 분야 협력강화에 합의함.
- 향후 중국은 대미 인프라 시설 투자 및 에너지, 농산물, 제조상품, 서비스상품의 수입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양국 경제협력도 확대·심화될 전망이다.

1. 미·중 경제협력 현황 분석¹⁾

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경제협력 관계

■ 미국과 중국은 최대 선진국과 최대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무역관계로 경제협력의 주요 관심사 안에서 차이를 보임.

-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국이자 정치·경제·안보·과학기술 분야에서 선두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최대 개발도상국이자 미국 다음으로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음.
- 2016년 미국의 GDP는 18조 6,000억 달러로 세계 1위, 1인당 GDP는 5만 7,000달러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유층과 중산층 규모가 총 인구의 50%를 넘고, 공업 및 서비스 상품의 소비역량에서 우위를 갖춘 '소비형' 경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6년 중국의 GDP는 11조 2,000억 달러, 1인당 GDP는 8,141달러로 세계 74위를 기록했으며, 도농 및 지역 간 발전 불균형 현상으로 인해 아직 빈곤인구가 많고 도시화율도 57%로 선진국 평균(70% 이상)에 비해 낮은 편임.
- 시장경제 발전 측면에서 미국은 이미 선진화된 시장경제체제를 운영 중이나 중국은 아직 적합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
-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형성한 기반이 달라 양국의 중점 관심사 안에도 다소 차이를 보임.

■ 미·중 경제관계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양국협력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과 양자 및 다자 간 대화기제를 통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경제 글로벌화로 전 세계 경제성장과 상품 및 자본의 유동을 촉진되고 있으며, 미·중 간 경제무역 관계도 이를 기초로 심화되어 왔음.
- 국가간 경제협력의 심화는 미·중 간 협력발전의 주요 전제이며,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는 미·중 경제무역 협력 확대 및 상호의존도 제고에 원동력으로 작용함.
- 미·중 양국이 전 세계 자원배분에 적극 참여함에 따라 경제무역 분야에서의 협력 및 경쟁은 경제 글로벌화의 과정에 반영되었으며, 세계 무역·투자 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음.
-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간 경제무역 관계를 심화함에 있어 WTO 규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양자대화 혹은 G20, APEC 등의 다자간 대화 기제를 통해 협력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1) 이 브리핑은 2017년 5월 25일 중국 상무부(商务部)에서 발표한 「중·미 경제무역 관계에 관한 연구보고서(关于中美经贸关系的研究报告)」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음.

■ 미국과 중국은 발전 현황, 경제구조, 부존자원 등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비교우위에 따라 상호보완적 경제협력 관계를 설정하고 있음.

- 중국은 △ 세계 최대 규모의 제조업 시장 △ 공급체인 발달 △ 대규모 우수인력 보유 △ 기초 인프라 분야의 성장 잠재력 등에 우위가 있음.
- 미국은 △ 과학기술 △ 일부 생산요소의 원가 우위 △ 서비스업 등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음.
- 미·중 경제무역 협력은 경제 글로벌화를 위한 국제 산업분업 및 자원 배분의 최적화에서 기인한 필연적 결과임.
-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로 미국의 고부가가치 설계, R&D 등과 중국의 저자본 생산·조립 등 요소간 상호 보완성이 심화되고, 단계적으로 이익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

나. 미·중 경제협력의 상호 이익분야

1) 미국의 이익

■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로 △ 상품무역 △ 서비스무역 △ 상호투자 △ 금융 등 분야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얻고 있음.

- [상품무역] 미국은 북미지역을 제외한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이 가장 크며, 증가율도 가장 빠른 편임.
- 지난 10년간 미국의 연평균 대중 수출증가율은 11%로 이는 전체 수출증가율(4%)과 중국의 대미 수출증가율(6.6%)을 상회하며, 2016년 미국 대중 수출은 2001년 대비 500% 증가하였음.
- 중국은 미국 항공기·대두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자동차·반도체·면화의 2대 수출시장임.

표 1. 2016년 미국의 대중 주요 수출상품

상품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항공기	440대	125억 달러	25%
대두	3,366만 톤	138억 달러	62%
자동차	25만 5,000대	121억 달러	17%
반도체	-	97억 달러	15%
면화	26만 톤	5억 달러	14%

자료: 中国商务部(2017. 5. 25), 「关于中美经贸关系的研究报告」.

- 「2016년 미국의 주(州)별 대중 수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미 31개 주의 대중 상품 수출규모가 2006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앨라배마(Alabama), 몬타나(Montana), 노스다코타(North Dakota),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등 4개 주는 5배가 증가함.

- 미국의 대중 수입은 가공무역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미국기업은 대체로 제품 설계, 핵심부품 제조, 운송 및 저장,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담당함으로써 높은 이윤을 창출하고 있음.
- **[서비스무역]**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서비스 수출규모는 2006년의 144억 달러에서 2016년 869억 달러로 약 5배 증가하였으며, 흑자규모도 2006년 대비 40배 증가한 557억 달러를 기록함.
- [관광] 중국이 미국의 국가별 관광수입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미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의 총 소비액은 352억 2,000만 달러, 1인당 평균 소비액은 1만 3,000달러를 기록함.
- [교육] 2016년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인은 35만 3,000명으로 전체 해외유학생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총 소비액은 159억 달러, 유학생 1인당 평균 소비액은 4만 5,000달러를 기록함.
- [영화] 2016년 미국은 중국에 51편의 영화를 수출하여 약 160억 달러의 이익을 거두었으며, 이는 미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 총합의 4배 수준임.
- **[상호투자]** 중국시장은 장기간에 걸쳐 미국기업의 성장 및 이윤창출의 주요 거점이 되어 왔으며, 미국에 진출한 중국기업 역시 투자를 확대하면서 현지의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세수 등에 기여하고 있음.
-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 대부분이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은행·보험 등 금융기업의 매출액은 약 480억 달러, 회계·법률·컨설팅 기업의 매출액은 19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함.
- 또한 2016년 미국 자동차 기업 GM과 포드(Ford)는 각각 387만 대와 127만 대를 판매하며, 중국 진출 이후 최대 판매량을 기록함.
- 2016년 말 기준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 누계는 약 1,090억 달러, 2016년 연간 투자액은 456억 달러로 2015년 대비 2배 증가했으며, 서비스·제조·부동산·숙박·IT·엔터테인먼트·금융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투자가 진행되었으며, 약 14만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 **[금융]** 중국 금융시장에 진출한 미국 투자자들은 중국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실시하고, 자본가치 상승 및 이익 배당²⁾ 등을 통해 대규모의 수익을 창출하였음.
- 2016년 말 기준, 미국 투자은행을 통해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한 279개 중국 기업이 증자 및 전환채를 포함, 총 165차례의 리파이낸스³⁾를 거쳐 3,152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였음.
- 2016년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1조 600만 달러이며, 중국이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것은 미국의 금융시장 안정과 시장 유동성 증가, 경제성장 촉진 등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심화는 간접적으로 미국에게 △ 경제성장 촉진 △ 소비자 복지수준 제고 △ 일자리 창출 △ 산업 업그레이드 촉진 등의 효과를 제공함.

- 2015년 대중 수입에 기인한 미국 GDP 상승률은 0.8%p로, 대중 수출액은 미국 GDP 중 1,650억 달러, 대중 수출액과 미·중 상호투자액은 GDP 중 2,160억 달러 규모를 차지함.

2) 기업이 자본 소유자에 대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

3) 수출입과 관련하여 신용공여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 수출어음 매입은행 또는 수출입상에 대하여 수입어음 및 수출어음대전을 어음의 인수, 할인으로 지급하거나 직접 선급해 지불하는 일종의 단기 무역금융.

- 대중 무역적자로 인해 유출된 달러가 선진 자본시장을 통해 미국으로 환입됨으로써 더 많은 국제금융자본 동원이 가능해지는데, 이는 달러의 국제통화 지위 및 미국의 국제금융센터 지위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함.
- 중국으로부터 우수한 품질의 저가상품이 수입됨으로써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중·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이 향상되었음.
- 또한 2015년 중국에서 수입한 저가상품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물가가 1~1.5% 하락했으며, 가계당 지출금액도 850달러 감소함.
- 2015년 미국의 대중 수출로 인해 실질적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180만 개에 달하며, 대중 수출과 미·중 상호투자로 인해 약 26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음.
- 미국 노동부에서는 2000~20년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 각각 179만 1,000개, 1,795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미국의 대중 서비스무역 흑자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글로벌화로 대규모 국제산업의 중국 내 이전이 촉진되고 있으며, 미국은 부존자원의 우위를 바탕으로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자금, 기술, 혁신 등 요소들이 IT, 항공우주, 설비제조, 바이오 등의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업 발전에 집중 투입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의 구조 전환이 추진됨.

2) 중국의 이익

■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무역 관계 심화를 통해 △ 상품무역 △ 서비스무역 △ 상호투자 △ 금융 등 분야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얻고 있음.

- **[상품무역]** 미·중 간 보완적 산업구조로 인해 미국은 중국에게 있어 대규모의 외부 수요가 존재하고, 수출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주요 거점시장이 되었음.
- 2008~16년, 중국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16%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계무역을 포함하면 미국은 중국의 대외무역에 있어 약 20%의 외부 수요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 중국은 미국의 최대 수입국으로, 2016년 중국의 대미 수출액과 미국의 대중 수입액은 각각 2001년 대비 7.2배 증가한 3,891억 달러, 4.7배 증가한 4,818억 달러를 기록함.
- 중국에서 수출규모가 비교적 큰 품목은 전기기계 및 음향설비, 기계기구 및 부품, 가구 및 부품, 게임용품, 신발 등이 있으며, 그중 전기기계 및 음향설비는 미국 총 수입액의 약 40%에 달함.
- **[서비스무역]** 미국은 중국의 2대 서비스무역 대상국으로 기술 및 문화 분야에서 협력은 중국이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2016년 미·중 서비스무역액은 전년대비 4.7% 증가한 1,181억 3,000만 달러이며, 중국 서비스무역 총액의 18%를 차지함.

- **[기술 무역]** 2016년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1,189건의 기술 수입, 1,337건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액으로는 각각 96억 4,000만 달러(31.4%), 37억 5,000만 달러(16.0%)로 집계됨.
- **[문화 무역]** 2016년 중국 문화상품 수출에서 미국이 227억 8,000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서비스 아웃소싱]** 2016년 중국기업이 미국에서 체결한 서비스 아웃소싱 계약액은 동기대비 25.1% 증가한 238억 5,000만 달러이며, 중국 전체 서비스 아웃소싱 계약액의 약 25% 비중을 차지함.
- **[상호투자]** 미국은 중국의 5대 투자국으로, 미국기업의 투자는 중국의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기업은 대미 투자를 통해 현지 시장을 개척하고 R&D 역량 및 기업 인지도를 제고하고 있음.
- 2016년 중국에 투자한 미국기업은 1,238개이며, 실제 이용 외자금액은 전년대비 14.2% 증가한 23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함.
- 2004~16년 미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금액의 59.8%가 제조업에 집중되었으며, 그 밖에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10.6%), 도·소매업(6.3%) 순임.
- 2011~2016년 중국기업의 대미 비금융 분야 직접투자액은 연평균 6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6년 말 누계기준 499억 9,000만 달러로 집계됨.
- **[금융]** 중국기업의 미국 금융시장 진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미국 금융시장은 중국 우수기업에게 융자 및 M&A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와 기업 내부 개혁 및 경영 수준 제고를 촉진하는 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
- 한편 최근 미국 투자은행, 회계사무소, 법률사무소 등 전문기관이 적극적으로 중국 금융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금융 관리·경영 수준 향상과 우수 인재 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미·중 경제협력 확대는 중국에게 △ 경제구조 업그레이드 △ 자금 유치와 선진 관리 경험 도입 △ 일자리 창출 △ 세수 증가 △ 국내 소비시장 발전 등의 효과를 제공함.**

- 미·중 경제협력은 중국의 산업 발전과 기술 고도화를 이끌어 경제구조 업그레이드를 촉진시킴.
- 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과 중국의 대학·연구기관 간 광범위한 협력은 중국 내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였음.
- 대미 하이테크 제품·설비·기술 수입을 통해 중국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고 있음.
- 중국시장 내 미·중 기업 간 경쟁으로 중국기업의 기술·산업 수준 및 혁신 역량의 제고가 이루어짐.
- 미국 서비스기업과의 협력 확대로 중국 서비스 아웃소싱 분야가 성장하고 있으며,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통산업의 개조 및 업그레이드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음.
- 미국의 고부가가치 상품이 중국의 수출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중국 개방형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양국의 경제협력으로 중국은 해외 선진기술 및 관리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고, 우수인력들이 미국에 유학하고 있음.
- 미·중 간 무역규모 확대, 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가공무역은 대규모의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분야로, 2016년 중국의 대미 수출에서 가공무역이 45%의 비중을 차지하며 중국 취업률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
- 2015년 말 누계기준 1만 9,000개의 미국기업이 중국 내 220만 3,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음.
- 중국은 대미 무역과 미국기업으로부터의 세수를 통해 비교적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2016년 미국기업이 중국에 지불한 관세액은 1,308억 위안, 2015년 재중 미국기업의 납세 총액은 2,243억 위안으로 집계됨.
- 대미 수입은 중국의 자원 절약과 시장 및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
- 대두, 면화, 보리 등 토지집약형 농산품의 수입이 중국 농경지 부족 문제를 완화시킨.
- 미국의 글로벌 브랜드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 대거 진입함에 따라 소비자 수요 충족이 용이해지고,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음.

2. 주요 쟁점에 대한 중국의 입장

가. 미국의 관심사항에 대한 입장

-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있어 제기하고 있는 주요 쟁점은 △ 무역적자 △ 위안화 환율 △ 생산과잉 △ 시장 개방 △ 지적재산권 보호 등임.

1) 무역적자

- 미국은 오랜 기간 대중 무역적자 문제에 대해 주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상품무역에서 흑자를 거두고 있으나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오히려 미국에 적자를 기록 중임.
- 2016년 중국은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미국에 55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중이며, 이는 중국 서비스 무역적자 총액의 23.1%에 해당함.
- 중국정부는 미국이 통계로 제시한 적자수치는 과대평가 되었으며, 전체 무역에서 중국이 흑자를 기록 했으나 실질적인 이익은 미국 측에 있다고 반박함.
- 미·중 상무부 간 공동 연구결과, 2008~14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연평균 19%, 2016년의 경우 50% 이상 과대평가 되었으며, 향후 중국의 인건비 상승, 무역 내 가공무역 비중 축소 등으로 인해 미국의 적자규모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양국 경제구조, 산업경쟁력, 국제산업 분업에 기인하며, 미국의 낮은 저축률 및 높은 소비율로 인해 자체적으로 국내 소비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워 대규모 소비재의 수입이 불가피함.
- 중국은 대미 상품무역 흑자를 기록 중이나,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우수한 품질의 저가 상품을 대량 수입함으로써 △ 인플레이션 하락 △ 생산원가 절감 △ 실질 구매력 및 서민 복지 수준 제고 등의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음.

2) 위안화 환율

■ 미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위안화 환율 절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측 일부 인사들은 중국정부가 위안화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제기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환율개혁 이후 위안화 환율 시장화를 위한 메커니즘을 지속 개선해왔으며, 위안화 환율은 이미 대폭 절상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음.

- 최근 수년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의 기준금리인상과 달러화 강세 유지 등의 외부환경 및 시장 수급 상황의 영향으로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이 소폭 절하되었으나, 이는 국제 정세로부터 기인함.
- 2017년 2월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의 추산에 따르면, 위안화 실질 환율과 명목 환율은 2014년 상반기대비 각각 7.5%, 5.7% 상승했으며, 달러대비 환율은 2005년 환율 개혁 이전과 비교해 약 20% 상승하였음.
- 국제통화기금(IMF)은 유럽은행감독청(EBA)의 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회원국 환율 평가를 실시한 결과, 현재의 위안화 환율이 중국 경제상황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밝힘.

3) 공급과잉

■ 미국은 철강 공급과잉을 글로벌 문제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정부의 철강 산업 지원을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의 근본적 원인이며, 기술발전이 미국 철강산업 내 실업률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함.

- 중국정부는 철강제품 수출을 장려하지 않고, 일련의 수출 억제 조치도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철강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중국 철강 산업의 발전은 자국 내 수요 충족을 위한 것이며, 중국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

핑 및 반보조금 정책 시행으로 지난 10년간 대미 철강제품 수출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음.

- 2014년 이후 미·중 정상회담, 전략대화, 비즈니스 무역위원회 등을 통해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더욱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4) 서비스시장 개방

■ 미국은 은행·증권·문화·제조업 등 분야의 중국 내 투자 진입 기준 완화를 원하고 있으나, 중국도 미국에게 이에 상응하는 분야에 대한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중국은 한 국가의 개방수준은 국내 정세에 근거해 정해지며 이는 정치제도, 경제체제, 발전 수준, 감독관리 역량 등과 연관되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힘.

- 최근 중국정부는 11개의 자유무역실험구를 설립과 더불어 외상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수정을 통해 대외개방 수준을 높임.
- 2010년 이후 중국의 연평균 실제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1,100억 달러를 상회하면서 25년째 개발도상국 중 가장 많은 외자를 유치하고 있음.
- 중국은 향후 무역·투자의 자유화 및 편리화 추진을 통해 대외개방 수준을 더욱 제고하고, 외자 유치를 위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임.

5) 지식재산권 보호

■ 지식재산권 보호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시하는 분야로,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가 일부 성과를 거두긴 하였으나, 여전히 보호 수준은 낮다고 주장함.

■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혁신형 국가 건설의 필수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고,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률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음.

- [입법 측면] 「반(反)불공정 경쟁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 법률을 수정 중에 있으며, 「소비자 권익보호법 실시조례」, 「인터넷 광고 관리 잠정 조치」, 「유통 분야 상품품질 관리 조치」 등 규정의 제정을 추진 중임.
- [사법 측면] 인민법원은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효율적으로 심사 처리하고, 형사처벌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사법 공신력을 높이고 있음.
- [행정집행 측면] 정부의 각급 행정기관의 조사 처벌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세관·국토안보·경찰업무 등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권리 침해행위 단속 강화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표 2. 마중 경제협력에서 미국이 제기한 쟁점 분야에 대한 중국의 입장

분야	쟁점 분야에 대한 중국의 입장
대중 무역적자	- 무역흑자는 공업화 과정의 경쟁력 향상에 따른 보편적 현상 - 적자의 과다 계상 문제: 2008~14년 미국의 대중 적자 19% 과대평가 * 상품무역: 중국 대미 흑자 2,540억 달러, 미국 대중 적자 3,660억 달러 * 서비스무역: 중국 대미 서비스무역 적자 557억 달러(전체의 23.1%) → 2016년 가공무역 비용과 서비스무역 감안 시 미국의 대중 적자는 1,648억 달러 -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감소, 미국 흑자 중 중국 비중과 중국 무역흑자 중 미국의 비중 하락 추세 - GVC상 무역흑자는 중국이, 실질 이익은 미국이 보고 있음. * 대미 흑자의 59%가 외자기업에서, 61%가 가공무역에서 발생 * [아이폰 사례] 중국 내 아이폰 판매 4,490만 대(세계 판매의 20.8%), 판매액 430억 달러, 순이익 91억 달러/아이폰 판매가격 649달러, 생산단가 237.4달러(중국 내 가공비 5.96달러 및 중국기업 전지 부품 2.5달러) - 미국의 대중 적자와 미국의 고용 감소의 직접적 관계없음. * 2010~16년 미국의 실업률은 9.6%에서 4.9%로 하락, 무역적자는 6,909억 달러에서 7,967억 달러로 증가 - 중국의 무역흑자 감축 노력 * 철강, 석탄 공급과잉 해소 노력 * 경상수지/GDP 비중: 2007년 9.9% → 2016년 1.9% - 무역적자 해소 위한 상호간 노력 필요; 미국의 대중 하이테크 제품 수출 규제 완화 필요
위안화 환율	- 위안화 환율 조작 주장은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음. - 시장화 개혁 추진: 2005년 7월 관리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지속적 절상 → 2015년 이후 통화바스켓 도입 → 2015년 8월 중간가 결정 시스템 개혁 → 2015년 12월 위안화 환율 지수 도입 및 '전일 증가+바스켓환율 변화' 방식의 위안화 환율 결정 시스템 도입 * 2005년 7월~2016년 12월 위안화 실질실효환율 47% 절상 * 2016년 경상수지/GDP 1.9% - IMF, 위안화 환율은 중국의 주요경제지표와 부합 * 미국의 환율 보고서(2017. 4), 중국 환율조작 없다고 인정 - 중국 중앙은행의 외환 공개시장조작도 환율조작 범위에 있지 않음. * 2015년 이후 위안화 절상과 자본유출 직면
공급과잉	- 중국은 철강 수출에 자체적으로 규제; 수출관세 부과(규소철 20%, 비합금 철근 15% 등) - 중국산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 급감: 2016년 대미 강재 수출 118만 톤 (17억 달러)에 불과 - 중국정부 철강 산업 구조조정 추진 중 * 2011~15년 9,000만 톤 감축, 2016년 6,500만 톤 감축(20만 2,000명) 2017년 5,000만 톤 감축 예정
시장개방	- 중국의 은행, 증권, 보험, 문화, 제조업 영역의 투자 개방 요구 * 미국은 항운, 상업위성 발사 서비스未개방 - 중국은 11개 자유무역실험구(FTZ)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 * 부가가치통신, 신에너지 자동차 전지, 주유소 등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추진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의 제한업종 93개에서 62개로 축소(서비스업, 제조업, 채광업 진입 제한 완화) * 2017년 1월 「대외개방 및 외자 적극 이용에 관한 통지」 발표하여 20개 조치 시행 - [예시] 자동차 분야의 실질적 개방 * 2016년 미국계 3대 자동차 업체(GM, Ford, 피아트)의 중국 판매 510만 대, 미국산 자동차 수입 25만 5,000대(121억 2,000만 달러), 재중 미국계 자동차 업체의 이윤 74억 4,000만 달러(2015년)
지재권 보호	- 미 「2017 무역정책 Agenda」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중요한 무역정책의 하나로 지정 -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정비 및 사법적 조치, 처벌 강화 추진 중 * 2016년 공안기관 1만 7,000건, 혐의자 2만 2,000명 체포/검찰기관 9,171명 체포 및 2만 1,000명 기소/ 1만 3,000건, 1만 8,000명 판결 * 2013~16년 127만 건 지재권 침해 사건 조사 - 미국과의 지재권 보호 협력강화 중

자료: 중국 상무부(2017), 『关于中美经贸关系研究报告』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나. 중국의 관심사항

- 중국이 제기하고 있는 주요 쟁점은 △ 시장경제지위 부여 △ 대중 수출 제한 △ 대미 투자 중국기업에 대한 공정대우 문제 △ 무역구제조치 남용 등임.

1) 시장경제지위 부여

-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WTO 회원국이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제15조항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미국과 EU는 여전히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이 조항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2016년 12월 1일에 대중 반덤핑 ‘대체국’ 조치를 종결해야 하나, 미국과 EU는 조항에 붙은 단서를 근거로 조항 이행을 유보하고 있음.
- 양국간에 존재하는 기타 문제들은 이 조항과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하며,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국내법 근거, 중국의 과잉생산, 시장경제 지위 등 문제는 이 조항 이행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함.

- 이 조항의 이행과 중국의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이며, 중국은 현재 미국에게 시장경제국가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

- ‘시장경제국’의 정의 및 기준은 WTO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미국 및 유럽 국가의 국내법에 존재하는 개념으로, 미국이 국내법 기준의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동 조항 이행 회피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조약 의무 준수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으로, 모든 국가는 국제조약 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회원국은 국제법이 평등하고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2) 대중 수출 제한

- 장기간에 걸친 미국의 대중 하이테크 제품 수출 제한 조치가 양국 과학기술 교류와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미국의 대중 수출 제한은 향후 양국 협력의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임.

4) 중국이 시장경제 조건에 부합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할 때 시장경제국가의 ‘대체국’ 가격을 정상가격(덤핑 판정에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이 규정은 가입일 15년 후 정지된다’고 명시되었으나, ‘WTO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중국이 시장경제 조건을 구비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음.

3) 대미 투자 중국기업에 대한 공정대우

■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 증가가 미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자본을 견제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가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를 저해하고 있음.

- CFIUS의 통계에 따르면, 2012~14년 3년 연속 중국기업 투자에 대해 가장 많은 심사항목(68개)을 적용함.

4) 무역구제조치 남용

■ 중국은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1순위 대상국이며, 미국이 조사과정에서 불공정한 기준 적용으로 중국 상품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중국기업의 대미 수출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 1980~2016년 미국은 중국제품에 대해 총 262차례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금액은 282억 2,000만 달러에 달함.
- 특히, 미국은 중국 철강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무역구제조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건수·관련금액·조사범위·부과세율 등 측면에서 여실히 드러남.

표 3. 미중 경제협력에서 중국이 제기한 쟁점분야에 대한 중국 입장

분야	중국 입장
WTO 의정서 조항 이행	- 「중국 WTO가입 의정서」 15조 의무 이행 - 미 국내법 우선, 중국 공급과잉, 시장경제지위 부여 문제와 15조 이행의 분리 요구
수출 규제	- 하이테크제품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 * 미국의 대중 수출 중 하이테크제품 비중: (2001년) 16.7% → (2016년) 8.2% - 만용 용도 제품의 대중 수출규제 완화가 무역적자 해소에 유리
미국 진출 중국기업에 대한 공정대우	- CFIUS의 안전심사가 중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심각한 장애임 * 중국의 대미 M&A 투자 3건에 대해 부결 * 2012~14년 중국기업 대미 투자에 대한 CFIUS 심의 건수 68건(실제로 중국 외국인투자 금액의 1% 이내로 미미) * 안전심사에 따른 중국기업의 M&A 영향 투자금액 500억 달러 초과 - 안전 심사 시 기타 국가 투자와 동일한 대우 필요
무역구제 남용	- 2017년 3월 기준 미국은 중국에 대해 총 153건(반덤핑 110건, SG 43건)의 무역구제조치 시행 중 * 1980~2016년 미국은 중국산에 대해 262건의 무역구제 조치 발동, 대상 수출액은 282억 2,000만 달러 * 2016년 20건의 무역구제 조사(대상액 36억 6,000만 달러), 21건의 337 조사 - 무역구제조치의 남용 및 고율·중복과세 문제(철강 사례) * 철강제품: 48건 구제조치(대상금액 48억 달러, 2017.3 현재), 2015년 이후 8건 조사 개시(대상액 16억 달러) 및 고율 과세(최고 500%) * 2014년 이후 중국의 대미 철강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무역구제 조치 증가, 철강 과잉 생산능력에 대한 압박과 무역구제조치 결합

자료: 중국 상무부(2017), 『关于中美经贸关系的研究报告』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3. 100일 계획과 제1차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

가. 100일 계획의 합의와 추진 현황

■ 2017년 4월 7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축소를 목적으로 한 ‘100일 계획’ 추진에 대해 합의함.

- 그러나 정상회담 직후 중국정부는 로스(Wilbur Ross) 미 상무부 장관이 언급한 ‘100일 계획’⁵⁾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 100일 내에 미국의 대중 수출 확대를 통한 무역적자 축소를 목표로 하는 협상이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

- 다만 중국 언론은 미 백악관의 뉴스 브리핑을 인용하여 100일 계획이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평가함.⁶⁾

■ 미·중 간에 10개 조항의 「미·중 간 경제협력 100일 계획 조기수확 프로그램」 합의(2017. 5. 13)⁷⁾

- ‘100일 계획’ 합의 내용에는 △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가 △ 중국산 닭고기 수입 허가 △ GMO 농산물 인증 △ 미국산 LNG의 대중 수출 재개 △ 100% 외자 신용평가 투자 허용 △ 파생상품 △ 전자지불 및 카드시장 개방 △ 미국의 중국계 은행에 대한 감독 △ 채권 인수 및 청산 업무 동시 허용 △ 미국의 ‘일대일로’ 포럼 대표단 파견 등을 포함하고 있음.

■ ‘100일 계획’ 중 농업분야 상호 개방, 미국산 LNG 수입 수출 재개, 신용평가 업무 개방 등이 이루어짐.

- 첸커밍(钱克明)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 중국의 대미 조리 가금육 수출 재개 △ 미국산 GMO 기술제품 5개 항목에 대한 인증서 발급 △ 중국의 대미 소고기 수입 허용 △ 미국의 대중 LNG 수출 제한 해제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함(7. 31).

- 중국은 농산품 분야에서 국가질량검사총국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가를 발표하고(6.20), 중국

5) Briefing by Secretary Tillerson, Secretary Mnuchin, and Secretary Ross on President Trump's Meetings with President Xi of China,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4/07/briefing-secretary-tillerson-secretary-mnuchin-and-secretary-ross>.

6) 「习特会成果一览 中美将进入100天谈判期(组图)」, <http://china.dqtimes.com/news/201704/156863.html>(검색일: 2017. 4. 9).

7) JOINT RELEASE: Initial Results of the 100-Day Action Plan of the U.S. - China Comprehensive Economic Dialogue,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17/05/joint-release-initial-results-100-day-action-plan-us-china-comprehensive>.

농업부에서 「농업 GMO 제품 안전증 (수입) 발급 허가 리스트」를 발표하였으며, 미국은 중국 농업 부와 질량총국에 중국산 조리 가공육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통보함(6. 15).

표 4. 미·중 100일 계획 합의 내용 및 추진 현황

구분	분야	합의 내용	추진 현황
미국 요구	① 농산물 무역 (소고기)	- 미·중 양국은 한차례 기술적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1999년의 「미·중 농업협력협약」에 따라 7월 16일 이전 미 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허가	중국 국가지량검사총국 사이 트를 통해 미국산 소고기 수 입 허가 발표(6. 20)
	③ 농산물 무역 (바이오기술)	- 중국이 5월 말까지 GMO 농산물의 8개 항목에 대한 안정 성 심사를 실시하고, 통과한 농산물에 대해 「중화인민공화 국 행정허가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안전증서를 발급	중국, 미국산 5개 품목에 대 해 GMO 안전증서 발급
	⑤ 금융서비스 (신용평가)	- 2017년 7월 16일 이전에 재증 100% 외자(wholly foreign-owned)의 신용평가서비스(credit ratings services) 금융기업을 허용하고, 허가신청 절차를 개시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 목록 (2017년)」에서 자산 신용조 사 및 평가 업무 외자 진입 제한 취소(6. 28) 중국 인민은행, Fitch, S&P, 무 디스 3대 기업에 은행간 채권시 장 신용평가 업무 허용(6. 30)
	⑦ 금융서비스 (전자지불)	- 2017년 7월 16일 이전에 미국기업이 단독으로 전자지불 서비 스 제공자(electronic payment services providers)의 허가증 신청을 허용하고,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시장진입(full and prompt market access)을 실현하는 조치 발표	미국계 전자지불 업체의 중 국 시장 진입 허용(6. 30)
	⑨ 금융서비스 (결산허가증)	- 중국은 2017년 7월 16일 이전에 미국의 2개 금융기구에 대해 중 국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채권 인수 및 청산(Bond underwriting and settlement licence) 대리 업무 자격을 부여	
중국 요구	② 농산물 무역 (닭고기)	- 7월 16일 이전에 중국산 조리된 닭고기 수입 허용	미 농업부, 중국산 조리된 닭 고기 수입 허용 발표(6. 15)
	④ 에너지 (천연가스)	- 중국의 미국산 LNG 수입을 허용하고, LNG 수출 허가에 있어 미국의 非FTA 국가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고, 중국 기업은 미국의 수출업체와 장기계약을 포함한 기타 형태의 계약 체결을 허용	2017년 4월 25일 현재 미 에너지부가 허가한 非FTA 국가에 대해 1일 192억 입 방피트(ft³)의 천연가스 수출 을 허용
	⑥ 금융서비스 (국제결산)	-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2017년 7월 16일 이전에 상하이 청산소(Shanghai Clearing House)에 대한 적용유 예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필요시 최대 3년까지 연장 - 중국인민은행과 CFTC간에 「국경간 청산기구 감독 협력 및 정보 교환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	CFTC가 2017년 7월 16일 이전에 상하이 청산소에 대 한 적용유예 기간을 6개월 연장할 것을 검토
	⑧ 금융서비스 (은행업)	- 중국계 은행 기구에 대해 기타 외국계 은행 기구와 동일한 심사·감독 표준을 적용	-
	⑩ 국제협력	- 미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5월 14~15일 개최되는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 포럼에 미국 측 대표단을 파견 - 미국은 6월 18~2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2017 select the US Investment Summit'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을 환영	미국 대표단, BRF 참가 (5. 14~15) 중국 대표단, Select USA 참가(6. 18~20)

자료: 「百日计划开局良好 G2合作新格局可期」(2017), 「申万宏源证券」(7月5日)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 중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2017년)」의 자산 신용조사 및 평가 업무 외 자 진입 제한을 취소하였고(6. 28), 중국 인민은행은 피치(Fitch), S&P, 무디스 등 3대 신용평가사의 은행간 채권시장 신용평가 업무를 허용하였으며, 미국계 전자지불 업체의 중국 시장 진입을 허용함(6. 30).
-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미국 대표단이 일대일로 포럼(BRF)에 참가(5. 14~15)하고, 중국 대표단이 Select USA에 참가함(6. 18~20).

나. 제1차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 개최

■ 2017년 7월 19일, 중국의 왕양(汪洋) 부총리, 미국의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부 장관과 로스(Wilbur Louis Ross Jr.) 상무부 장관이 참석한 첫 번째 미국과 중국 간 ‘포괄적 경제대화(U.S.-China Comprehensive Economic Dialogue)’가 개최됨.

- 이번 대화에서 양국 대표는 ‘100일 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미·중 경제협력 1년 계획(one-year plan) 추진과 거시경제 및 금융, 무역, 투자, 글로벌 거버넌스 등 4개 분야의 협력강화에 합의함.
- 양국은 미국 쌀의 중국 수출 허용과 중국의 미국산 바이오 테크놀로지 상품 허가,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 확대 등에 합의함.
- ※ 중국질량검역총국과 미국 농업부간 미국산 쌀의 대중 수출 검역 관련 절차에 합의했다고 발표함(중국 상무부 발표, 7. 26).

■ 이번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의 통상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짐.

- 중국 측은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15조항 문제, 미국의 대중 수출 제한,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 공정대우 문제, 미국의 무역구제 남용 문제를 제기함.
- 미국 측은 미·중 간 무역과 투자의 재균형, 대중 무역적자, 위안화 환율, 과잉생산, 시장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제기함.

표 5. ‘제1차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의 주요 논의 사항

분야	주요 논의 내용
100일 계획 평가	- 100일 계획 기간 중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중국의 시장 개방, 미국산 LNG의 대중 수출 장애 타개, 중국의 5개 항의 미국산 바이오기술 신청 승인, 중국산 조리 닭고기의 대미 수출과 중국계 은행의 미국시장 진입 제한 등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

표 5. 계속

분야	주요 논의 내용
경제협력 1년 계획	- 거시경제 및 금융, 무역협력, 투자협력, 글로벌 거버넌스 협력 등 4개 분야 협력강화 합의
거시경제 및 금융	- 거시경제 및 금융 전문 회의에서 각국의 거시경제현황을 소개하고, 재정, 세수, 금융, 금융 감독 분야의 협력 촉진 논의
서비스	-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무역 투자	- 협력강화, 이견 조정, 무역적자 축소 협력 등 논의
생산 과잉	- 철강, 알루미늄, 하이테크 제품 무역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민용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제한 완화를 통해 무역균형을 촉진한다는 데 공통 인식
농업 협력	- 농업정책, 농산물 무역, 가금류 무역에 대한 상호 개방, 건조 옥수수에 대한 증치세 문제, 수입식품 안전증서, 농업 바이오기술 제품 비준, 중국의 미국산 유제품 및 수산물 수입, 양국간 통 협력에 대한 연구 등에 대해 의견 - 「미국산 쌀의 대중 수출 검사검역 의정서」서명
기타	- 세계경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협력강화에 대한 공통 인식

자료: 新华社(7. 19), 「首轮中美全面经济对话取得积极成果」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중국은 이번 경제대화를 통해 △ 경제협력 추진 방향 확립 △ 대외개방 확대 △ 미·중 경제협력 심화 등을 위한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양국은 상호공영을 경제무역 협력 추진의 기본 원칙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나갈 것이며, 정책 교류를 대화협력의 기본 방식으로 유지할 것에 합의함.
- 향후 중국은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양국은 작은 분쟁보다는 상호 협력의 발전 가능성을 보다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제무역 협력을 추진할 것임.
- 양국은 최근 미·중 경제적 이익의 융합 심화 추세를 직시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협력 발전 기조를 형성하고자 함.

4. 향후 전망

■ 미·중 간 통상관계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및 트럼프 정권의 불확실성 등으로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확산, 트럼프 정권의 불확실성 고조로 인한 미·중 협력 추진이 다소 정체될 것으로 예상됨.
- 신흥시장에 대한 미국의 무역보호주의가 대외무역 제재 강화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미국 정권 내부에서 대중 강경파들이 경제통상 분야 주요직을 맡고 있어, 무역마찰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2017년 7월 트럼프의 지지율이 36%까지 하락하는 등 정권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미국 내 정치적 대립 및 포퓰리즘 심화 국면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미·중 간 합의 내용 추진 및 이행의 난항이 예상된다.
- 양국 경제 분야의 실질적 수요로 볼 때, 미·중 간 상호협력은 지속 심화될 전망이다.
-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포지션 변화로 미국과의 마찰이 야기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중국의 대외투자 확대, 소비증가, 산업구조 업그레이드가 미국의 취업률 증가, 무역적자 감소, 하이테크 기술 우위 확보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대미 수입 확대]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농산품과 더불어 하이테크 제품의 수입을 늘일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가격 경쟁력을 보유, 이는 미·중 협력강화의 잠재적 기회로 간주할 수 있음.
- 중국은 대두, 면화 등 농산품의 대미 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할 방침임.
- 또한 미국과 항공기, 마이크로칩 등 하이테크 제품 수입 확대를 위한 논의를 적극 진행할 예정임.
- 미국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중국 내 수요는 큰 반면, 최근 중국 동종 제품 수입 총액 내 미국 제품 수입의 비중은 8.2%로 매우 적은 수준임.

■ [대미 서비스 협력 확대] 중국은 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미 수입을 확대하고 전자 상거래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임.

- 영화, 관광,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대미 수입을 확대하여 국내 수요 충족 및 시장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미국 중소기업에게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중소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음.
- 2016년 미국기업이 중국 알리바바(阿里巴巴)의 타오바오(淘宝) 플랫폼을 통해 달성한 매출액은 1,200억 위안에 달하며, 약 2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 중국 알리바바는 향후 5년간 100만 개의 미국 중소기업이 자사의 플랫폼을 통한 판매망 확대를 지원토록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으로 기대함.

■ [대미 투자 확대] 중국은 미국과의 투자협력강화를 위해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상호투자개방 수준 제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미국이 지하철·철도·파이프라인·댐·공항·전력 등 기초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어 중국은 대미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 2016년 중국은 미국과 1,319건의 계약을 체결, 총 계약금액과 매출액은 각각 43억 달러, 22억 달러로, 미국 인프라 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중국기업의 투자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며,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큼.
- 미국 건축사협회의 보고에 의하면, 2016~25년 미국 기초인프라 투자 수요는 약 3조 3,000억 달러이며, 약 1조 4,40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필요로 함.
- 미국은 기초인프라 시장 내 외자 안전심사 등의 투자 제한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중국기업의 투자 확대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음.
- 중국정부는 대외개방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투명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개방을 통한 개혁 및 경제발전을 추진하며, 미국과의 상호투자협정(BIT) 관련 논의를 지속 진행할 계획임.
- 법치화·국제화·편리화 환경을 조성하고, 유입된 외자를 경제성장 방식 전환 및 구조조정에 적극 활용하는 등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외자 역할 강화방안을 모색할 방침임.
- 미국과의 상호투자협정 관련 대화를 통해 미국기업의 대중 투자 기회를 늘리고, 중국의 은행·증권·보험·통신·인터넷·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여 양국 모두에게 실리를 제공하고자 함.

[참고자료]

- 「百日计划开局良好 G2合作新格局可期」, 2017. 『申万宏源证券』, (7月5日)
- 「关于中美经贸关系的研究报告」, 2017. 中国商务部 (5月25日)
- 「首轮中美全面经济对话取得积极成果」, 新华社 (7月19日)
- 「首轮中美全面经济对话达到预期目的」, 新华社 (7月20日)
- 「中美全面经济对话: 短期负向冲击不可轻视, 长期合作稳健可期」, 2017. 『澎湃新闻』, (7月20日)
- 「中美全面经济对话: 扩大合作共赢 减少单方行动不确定性」, 2017. 『中新社』, (7月21日)

자료 정리: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박사과정 조수영(swimtiam@naver.com)